

# 栗谷 李珣 九度狀元

\*

- 
- I. 서론
  - II. 연구를 위한 기본적 근거
  - III. 九度狀元에 해당하는 과거시험
  - IV. 결론

| 본고에서는 이이(1536~1584)가 과거시험에서 아홉 번 狀元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때 장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홉 번의 횟수는 맞는지, 맞다면, 그것은 어떤 시험들이었는지를 조선시대 과거시험 전공자의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도장원’ 중의 장원은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각 단계별로 실시되는 모든 시험마다 1등으로 붙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 또한 이이는 20세, 22세, 23세에 각각 문과 초시에서 장원을 하고, 29세에서는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6회 장원을 하여 총 아홉 번의 장원을 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료들을 활용하여 「울곡연보」(울곡전서본)의 과거시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향후 이이의 20대 행적을 보완하고, 새로운 「울곡연보」의 편찬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이이, 생원진사시, 문과, 구도장원, 울곡연보, 울곡전서

---

\* 車美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교육과 역사교육 전공 교수  
miheecha@ewha.ac.kr

투고일: 2022. 12. 23 심사완료일: 2022. 12. 27 게재확정일: 2022. 12.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2.43..39>

栗谷 李珣(1536~1584년)는 학계와 일반대중 모두의 큰 관심을 받는 역사 인물이며,<sup>1)</sup>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반대중의 관심이 지속되는 주제 중 하나는 九度狀元이다. 이이의 문집인 『栗谷全書』 안에는 이이의 생애를 정리한 「栗谷年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율곡연보」에는 이이가 과거시험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구도장원’은 甲子年(29세, 명종19년, 1564)에 이이가 生員進士試에 入格하고, 文科에 及第했음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이는) 대개 前後로 居魁한 것이 무릇 아홉 번이다. 문과 급제 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날, 거리의 아이들(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이가 탄) 말을 둘러싸고 ‘구도장원’한 분이라고 불렀다”<sup>2)</sup>라고 서술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학계에서 이루어진 ‘구도장원’에 대한 설명은 철학과 역사학계에서 나온 율곡 평전들을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평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이를 성리학자이자 경제가로서 평가하고, ‘구도장원’을 이이의 천재성과 연결시켰다. 2011년에 나온 한국철학계의 평전에서는 “율곡이 前後 과거시험에서 모두 아홉 번 장원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는 소과의 생원시와 진사시가 각각 초시(初試)와 복시(覆試·會試)가 있으니 모두 네 번의 시험이 있고, 대과에 초시·복시·전시(展試)의 세 번 시험이 있으니 모두 장원하였다 하더라도 일곱 번 장원하는 정도이다. 아홉 번 장원이라는

---

1) 근대 학문이 시작된 20세기 이후 역사, 철학, 문학, 사회과학 등에서 진행된 율곡 연구를, 이이 자체의 정치·사상적 특성을 다룬 연구, 이이 사후 서인·노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이의 사상을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한 최근 것으로는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율곡 이이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을 들 수 있다.

2) 『栗谷全書』 33권, 附錄, 年譜 上, 甲子年, 七月中生員進士 八月中明經及第 … 蓋前後居魁者凡九 唱榜之日 市童擁馬曰 九度狀元公也.

말은 시험마다 모두 장원하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이어 2013년 한국사학계에서 나온 평전에서는 “29세에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초시와 복시에서 장원하고, 문과 시험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에 모두 장원하여 일곱 번 장원했는데, 아홉 번 장원한 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마도 13세 때 진사 초시에 급제하고, 23세에 별시 초시에 장원한 것을 합쳐서 부른 것이거나, 아니면 일곱 번 장원을 듣기 좋게 아홉 번 장원으로 바꿔 불렀는지도 모른다”<sup>4)</sup>라고 하였다.

사실 그동안의 이이 연구를 보면, 이이가 문과에 급제했던 29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활동과 철학 및 사상을 다룬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 29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이 「울곡연보」 내 수록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20대 행적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이이의 과거시험에 대한 연구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울곡 평전들의 ‘구도장원’ 설명은 「울곡연보」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두 평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일곱 번 장원을 말하면서 ‘구도장원’의 의미를 시험마다 모두 장원하였다는 뜻이거나 일곱 번 장원을 듣기 좋게 아홉 번 장원으로 바꿔 부른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가운데 일곱 번 장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국철학계의 평전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과 달리, 한국사학계 평전에서는 이이가 29세에 생원시의 초시와 복시에서 두 번, 진사시의 초시와 복시에서 두 번,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세 번, 총 일곱 번 장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울곡연보」의 29세 기록은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네 번 장원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sup>5)</sup> 그리고 이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전 서술 당시 최소한 司馬榜目에서

3) 금장태, 『울곡평전 -나라를 걱정한 철인』, 지식과교양, 2011, 84쪽.

4) 한영우, 『울곡 李珣 평전』, 민음사, 2013, 79쪽.

5) 이것은 『栗谷全書』 33권, 附錄, 年譜 上, 甲子年의 “魁監試兩場文科發解 又魁生員及文科 覆試展試”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고의 3장 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이가 진사시의 복시에서 ‘3등급 12위(42위/100명)’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29세의 일곱 번 장원’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학계 평전에서는 ‘구도장원’에 대한 또 다른 추측성 설명을 제기하면서, 아홉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29세의 일곱 번 장원’에다가, ‘23세의 별시 초시 장원’과 ‘13세의 진사 초시 급제’를 추가하였는데, 이 중 ‘13세의 진사 초시 급제’<sup>6)</sup>는 장원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사학계 율곡 평전의 이 무리한 추측성의 9회 설명이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 그대로 유통·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평전의 이 9회 설명을 그대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대중들은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율곡 이이를 공부의 신, 시험의 신 등으로 부르며, ‘구도장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답습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현실은 학계에서 이이의 ‘구도장원’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전공자로서 율곡 이이의 ‘구도장원’을 다루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필자의 ‘구도장원’ 연구는 『율곡전서』의 「율곡연보」에 수록된 과거시험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이가 생원진사시에 입격하고 문과에 급제했다는 갑자년(29세, 명종19년, 1564)의 기록을 司馬榜目, 文科榜目, 明宗實錄 등을 통해 검토하면서, ‘구도장원’은 갑자년 이전 시기의 과거시험 성과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居魁한 것이 무릇 아홉 번이다”를 ‘구도장원’과 연결하여 과거시험의 내용 중에서 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魁의 횟수는 8회에 불과하여 연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필자의 연구가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한국사와

6) 이것은 『栗谷全書』 33권, 附錄, 年譜 上, 戊申年의 “中進士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고 3장 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7) 나무위키(namuwiki) > 율곡 이이 > 2.2 구도장원공

한국철학 분야의 율곡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다.<sup>8)</sup> 또 다른 하나는 이이에 대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율곡연보」의 내용이 계속 바뀌었으며,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율곡연보」는 조선시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4차례 편찬·간행되었으며, 1749년(영조25)에 간행된 『율곡전서』에 수록된 「율곡연보」는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계속 바뀌었다.<sup>9)</sup> 한편, 「율곡연보」의 내용이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된 것은 율곡학의 지평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어 2019년에 간행된 『校勘本 栗谷全書』를 검토하면서였다. 이 저서의 해제에서는 “과거에 비해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진 현 시점에서, 17세기나 18세기에 작성된 연보에만 기대어 율곡의 행적을 이해하기 보다, 다양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이의 행적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율곡연보」의 편찬 필요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sup>10)</sup>

본고에서는 『교감본 율곡전서』에서의 제안에 따라 ‘구도장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율곡전서』의 「율곡연보」(이후 「율곡연보」(율곡전서본)으로 약칭)에서 벗어나 현재 필자가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로 시야를 넓혔다.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실록, 경국대전, 문과방목,<sup>11)</sup> 사마방목 등의 사료,

8) 한국사 분야의 이경동 선생님에게는 율곡 연구의 동향과 자료들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한국철학 분야의 김경호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본고 3장 2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9) 「율곡연보」는 광해군대 전후하여 편찬·간행된 여러 판본의 『栗谷集』 안에 처음 수록된 이후 1665년(현종6) 宋時烈이 중심이 된 『栗谷牛溪二先生年譜』와, 1682년(숙종7) 경朴世采가 주관한 『栗谷先生年譜』 補編을 각각 거치고, 1749년(영조25) 洪啟禧에 의해 간행된 『栗谷全書』에 수록되는 마지막 과정을 거쳤다(유세롬, 「17세기 西人の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韓國史論』 18, 2006, 26~63쪽; 이경동, 위의 논문, 63~60쪽, 134~147쪽, 218~227쪽;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儒學研究』 52, 2020, 5~12쪽).

10) 이경동, 「해제」, 『校勘本 栗谷全書』 1, 전주대학교 율곡 이이 자료 집성 및 정본화 사업단, 율곡연구원, 2019, 21쪽.

三灘集, 虛白堂集, 退溪集, 南溪集 등의 문집류,<sup>12)</sup> 『栗谷全書拾遺』에 수록된 과거시험 답안 글, 『默齋日記』<sup>13)</sup> 등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본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에서는 이이가 응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성격, 시험 절차, 시험 절차별 선발인원과 고시과목에 대해 설명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험 절차마다 응시생들이 선발되면서 얻은 성적에 대해 사용된 표현과 명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을곡연보」(을곡전서본)에서 사용된 中, 魁, 狀元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을곡연보」(을곡전서본)에 수록된 과거시험 내용들을 시기순으로 검토하면서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는 향후 이이의 20대 행적을 보완하고, 새 「을곡연보」를 편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11) 본고에서는 문과의 실시 시기, 선발 인원, 전시 출제 문제, 주목할 만한 사건 등과, 여러 소장처의 문과방목들을 망라하고 조선왕조실록 기사까지 포함하는 등 조선시대 문과 연구의 기본자료로서, 『朝鮮時代 文科白書(上)』(太祖~仁祖, 송준호·송만호 편저, 삼우반, 2008)를 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별도로 실록을 제시하겠다.

12) 三灘集은 李承召(1422~1484년)의 시문집, 虛白堂集은 成俔(1439~1504년)의 시문집, 南溪集은 朴世采(1631~1695년)의 문집이다.

13) 『默齋日記』에서 활용하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기 저자인 李文樾(1494~1567년)이 星州牧使 盧慶麟(1516~1568년, 성주목사 재임은 1555년 8월~1560년 7월)에 대해 남긴 기록 중 노경린의 가족사, 특히 사위 이이에 대한 기록이다. 또 하나는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초시 중 하나로 실시된 향시, 특히 경상도 향시에 대한 기록을 비롯한 과거시험 관련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默齋日記』는 번역서(정공식 외, 2019, 『역주 목재일기』, 경인문화사)가 출간된 상황이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각주에서는 해당 사료와 함께 번역서의 출전도 함께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 1. 生員進士試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선발 대상에 따라서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 무반 관원을 선발하는 무과,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과로 나뉘었다. 생원진사시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으로, 관원 선발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문과 예비시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經國大典』 禮典 諸科 조항에 문과와 함께 수록되었다.<sup>14)</sup> 또한 과거시험은 선발 시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式年試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別試로 구분되었다. 문과는 식년시와 별시가 설행될 때마다 항상 실시되었으며, 생원진사시의 경우에는 식년시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별시 중에서는 왕실 경축을 계기로 설행되는 증광시 때에만 실시되었다.<sup>15)</sup> 이는 이 여러 종류의 과거시험 중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응시하였는데,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원진사시는 대체로 四學과 鄉校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응시하였으며,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 모두 1차 시험인 初試와 2차 시험이자 최종 시험인 覆試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응시생들은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sup>16)</sup> 응시생에게 요구된 고시과목은 생원시와 진사시가 각각 달라서, 생원시에서는 사서오경 등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여, 초시와 복사에서 모두 五經義 1편, 四書疑 1편 중 2편을 시험하였다. 한편 진사시

14) 『經國大典』 禮典 諸科.

15) 차미희,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국학자료원, 1999, 128-143쪽;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31-41쪽.

16) 최진옥, 위의 책 89쪽;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응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초시든 복시든, 항상 진사시를 먼저 실시하고 하루 간격으로 생원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먼저 실시되는 진사시의 초시와 복시를 初場, 하루 뒤에 실시되는 생원시의 초시와 복시를 終場이라고 불렀다(최진옥, 위의 책, 46쪽).

에서는 문학적 능력을 요구하여 초시와 복시에서 공통적으로 賦 1편, 古詩, 銘, 箴 중에서 1편 총 2편을 시험보였다.<sup>17)</sup>

생원진사시의 초시는 다시 서울에서 실시하는 한성시와 지방에서 실시하는 향시로 나뉘었는데, 생원시와 진사시 모두 각각 한성시에서 200명, 향시에서 500명 총 700명씩을 선발하였다. 생원진사시의 복시에서는 초시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생원시 100명, 진사시 100명을 각각 최종적으로 뽑아서 생원,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고,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sup>18)</sup>

생원진사시의 단계별 시험 절차마다 응시생들이 선발되면서 얻은 성적에 대해 사용된 표현이나 명칭을 살펴보면, 우선, 응시생이 초시에 붙었을 때에는 초시의 선발인원 내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卍이라고 표현하였으며,<sup>19)</sup> 생원진사시의 초시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으뜸이라는 뜻의 魁자를 붙였다.<sup>20)</sup>

또한 생원진사시의 복시에서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는 공식적으로 入格者

17) 『經國大典』禮典 諸科.

18) 『經國大典』禮典 諸科. 이 중 생원시의 향시와 진사시의 향시에 각각 배정된 500명의 선발인원을 다시 도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6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 35명.

19) 『默齋日記』戊午年(명종13년,1558) 9월 7일(경진)(『국역 목재일기』 3권, 524쪽), 李仁博 金聃壽 朴漢等來見 皆中監試云 今赴大丘 見左道東堂云; 『三灘集』 30권, 碑碣, 淮陽府使安侯墓碣 公諱復初 姓安氏 竹州人 … 弱冠中監試 以父任補職 歷瑞興信川尼山守.

20) 『默齋日記』辛亥年(명종6년,1551) 8월 19일(갑술)(『국역 목재일기』 2권, 116쪽), 試畢榜出 進士五十 生員五十 魁二人皆陝川居云. 이 일기의 내용을, 앞의 각주 18번과 연결하여 설명하자면, 생원시와 진사시의 경상도 향시는 각각 100명씩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나누고, 선발 숫자도 다시 각각 반으로 나누어 선발하였다. 따라서 이문건은 자기가 거주하는 성주 지역이 해당되는 경상우도의 생원진사시 향시 결과가 나오자 진사시 50명과 생원시 50명에서 각각 1등한 두 명에게 으뜸이라는 뜻의 魁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가운데, 생원시와 진사시의 입격자 100명은 각각 ‘一等五人, 二等二十五人, 三等七十人’으로 나뉘었는데,<sup>21)</sup> 이 복시에 붙었을 때에도 선발인원 100명 내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sup>22)</sup> 한편, 생원시와 진사시의 복시에서 각각 100명 중 1등으로 입격한 ‘一等一人’에 대해 사마방목에서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sup>23)</sup> 실록에서는 복시 1등 입격자에 대해 ‘生員壯元 進士壯元’이라고 하여 壯元이라고 호칭하거나 “시험에서 가장 뛰어나거나 첫째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의 동사 형태로 魁자를 사용하였다.<sup>24)</sup>

이처럼 생원진사시에서는 초시와 복시에 붙는 것을 中이라 표현하고, 초시와 복시에서 1등으로 붙은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魁와 壯元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魁자는 명사 형태와 동사 형태가 함께 쓰이고 있었다.

생원진사시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이외에, 문과 예비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성격은 성균관 교육과 문반 관원 선발을 연결시키려고 하였던, 문과의 초시 중 하나로 실시된 館試를 통해 알 수 있으며,<sup>25)</sup> 15세기 문과 급제자 가운데 60%가 생원, 진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생원진사시를

21) 이것은 白牌의 양식을 규정한 『經國大典』禮典 白牌式 조항과 실제 백패의 사례에서 확인된다(『經國大典』禮典 白牌式, … 幾登第幾人入格者; 姜籤이 받은 白牌의 사례-教旨 幼學姜籤進士三等第七十人入格者).

22) 『虛白堂集』, 虛白堂補集 4권, 詩, 喜世昌中生員進士兩試.

23) 예를 들면, ‘명종 13년(1558) 戊午式年試’에서 생원시 입격자 周博은 ‘一等一人’에 해당되었지만, 司馬榜目에서는 ‘一等五人’의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24) 『世祖實錄』 35권, 세조 11년 1월 27일(乙亥), 考試官宋處寬金禮蒙等 取進士鄭攀等百人生員李昌臣等百人以啓 … 生員壯元李昌臣進士壯元鄭攀各率榜下 分入東西庭; 『成宗實錄』 76권, 성종 8년 2월 8일(丁丑), 延城府院君 李石亨卒 … 連魁進士生員試 又魁文科.

25) 관시는 성균관에서 30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먹으며 하루 종일 공부하였음을 증빙하는 圓點 300점을 구비한 생원과 진사만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하는 시험이다(차미희, 앞의 책, 33-34쪽).

문과의 예비시험 인식했던 것은 생원진사시를 小科, 문과를 大科로 칭하고, 고려시대 과거시험(제술업)에서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칭했던 이름을 계승하여 생원진사시를 監試, 司馬試 등으로, 문과를 東堂試으로 부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sup>27)</sup>

## 2. 文科

이이는 생원진사시 이외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에도 응시하였다. 조선 초기 이후 문과 출신의 문반 관원이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를 운영하는 핵심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과는 응시생에게 자신이 평상시 공부하며 터득했던 것을 토대로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해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사대부 삶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이다.<sup>28)</sup>

문과의 경우 식년시와 별시가 설행될 때 항상 실시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는데, 응시생이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는 우선, 식년시 문과의 3단계 시험절차인 초시, 복시, 전시에 어떤 고시과목을 각각 부여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문과에서는 우선 문반 관원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학에 대한 이해를 初場에서 요구하였는데, 초시와 복시의 초장에서는 각각 시험 보는 방식을 달리하여 초시의 초장에서는 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를 필기시험인 製術로 평가하면서 義, 疑, 論 중에서 총 2편을 부여하였으며, 복시의 초장에서는 사서삼경에 대한 이해를 구두시험인 講經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6) 김창현, 『朝鮮初期 文科及第者研究』, 일조각, 1999, 42쪽.

27) 최진옥, 앞의 책, 19-21쪽;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9월 16일(기축)(『국역 목재일기』 3권, 527-528쪽), 東堂榜出 額數只十五 金山尹寬子中魁.

28) 『栗谷全書』 2권, 詩 上, 釋褐登龍門.

中場에서는 응시생에게 문장 제술 능력을 요구하여 초시든 복시든 모두 동일하게 賦, 頌, 銘, 箴, 記 중에서 1편, 表와 箋 중 1편 총 2편을 부여하였다. 마지막 終場에서는 對策 1편의 작성을 통해 응시생의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도 요구하였다. 아울러 초시와 복시의 경우에는 초장, 중장, 종장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선발하였으며, 殿試에서는 對策, 表, 箋, 箴, 頌, 制, 詔 중 1편을 시험 보였다.<sup>29)</sup> 한편, 별시 문과의 경우에도 식년시 문과에서 제시된 고시과목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sup>30)</sup>

식년시 문과의 시험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초시는 응시 대상과 실시 주체에 따라 館試, 漢城試, 鄉試로 구분되었다. 관시는 성균관에 居館하면서 圓點 300점을 획득한 생원과 진사를 대상으로 성균관에서 실시하여 50명을 선발하고, 한성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과 堂下官 관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시행하여 40명을 선발하고, 향시는 전국 8도에서 각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식년시의 복시에서는 초시 선발자 240명을 대상으로 33명을 선발하였는데, 그 뒤 전시에서는 33명의 등급과 순위만을 결정하여 ‘甲科 三人, 乙科 七人, 丙科 二十三人’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질적 선발은 복시에서 결정되었다.<sup>31)</sup> 한편, 별시 문과의 경우에는 초시를 실시한 뒤 복시와 전시를 합해 전시만을 실시하는 등 시험 절차가 다양하였으며, 선발 인원도 그때그때 왕의 명령을 받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32)</sup>

이러한 문과에서도 단계별 시험 절차마다 응시생이 선발되면서 얻은 성적에 대해 어떤 표현이나 명칭이 사용되었을지를 살펴보면, 우선, 응시생이

29) 『經國大典』禮典 諸科.

30) 차미희, 앞의 책, 68~69쪽.

31) 『經國大典』禮典 諸科. 이 중 문과 향시의 선발인원인 150명을 다시 도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영안도 10명.

32) 차미희, 앞의 책, 61쪽.

초시에 붙었을 때에는 역시 초시의 선발인원 내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中으로 표현하였으며,<sup>33)</sup> 초시에서 1등으로 붙은 사람에 대해서는 首와 魁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sup>34)</sup> 문과의 실질적 선발이 이루어지는 복시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壯元及第’라고 하여 장원으로 칭하였다.<sup>35)</sup>

또한 문과 전시에서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도 中이라고 표현되었으며,<sup>36)</sup> 최종 선발자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명칭은 及第出身者였다.<sup>37)</sup> 한편, 문과 전시의 최종 1등 급제자에 대해 경국대전에서는 ‘甲科 第一人’이라고 칭하였으며, 문과방목에서도 ‘甲科 三人’의 항목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었다.<sup>38)</sup> 그러나 실록에서는 전시 1등 급제자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

- 
- 33)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1558) 윤7월 15일(경인)(『국역 목재일기』 3권, 504쪽), 李臣赴左道中初試, 宋應秀亦高中矣;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1558) 윤7월 18일(계사)(『국역 목재일기』 3권, 505쪽), 禹希成來見 其兄中別初試 近上京云 即去
- 34) 『默齋日記』 乙卯年(명종10년,1555) 10월 25일(병술)(『국역 목재일기』 3권, 131쪽), 見右道文榜 宋師居首 宋師順 李淳 禹熙平 金守宏 呂應龜 皆中;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1558) 9월 16일(기축)(『국역 목재일기』 3권, 527-528쪽), 東堂榜出 額數只十五 金山尹寬子中魁. 뒷 사료를 앞의 각주 31번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문과의 경상도 향시 역시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나누고, 선발 인원 30명도 각각 반으로 나뉘어 선발하였다. 따라서 이문건이 자신이 거주하는 성주 지역이 해당되는 경상우도의 향시가 끝나고 선발자 15명의 명단이 나오자, 金山 지역에 살고 있는 尹寬의 아들이 1등으로 붙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문과의 경상도 향시에 대해서는 차미희, 「『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鄉試」, 『韓國史學報』 53, 2013을 참고하기 바람.
- 35) 전경목,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진성이씨 이동표 언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권 3호, 2011, 45쪽.
- 36)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1558) 8월 15일(기미)(『국역 목재일기』 3권, 515-516쪽), 鄭适來見 言文科只取十一人 吳雲驥爲壯元云云 姜賢同之孫 柳藕之子 等皆登科 尹俱夫末子根壽亦中 此道人只咸陽林希茂一人中之云 吳雲驥曲城縣人云云.
- 37) 흔히 말하는 급제자는 급제출신자의 준말이며, 이 명칭은 무과 급제자에게도 해당된다. 이것은 『經國大典』 禮典 紅牌式 규정과 실제 紅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經國大典』 禮典 紅牌式, 教旨 文科 某科(稱甲乙兵) 第幾人及第出身者 …; 鄭東潤이 받은 홍패의 사례- 教旨 幼學鄭東潤文科丙科第二十六人及第出身者).

급제자의 관직 제수와 관련해서는 법전 용어에 따라 ‘甲科 第一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sup>39)</sup>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은 역시 狀元이었으며,<sup>40)</sup> 전시에서 최종 1등으로 급제한 것에 대해서는 동사 형태의 魁자를 사용하였다.<sup>41)</sup> 『목재일기』에서도 문과 전시의 최종 1등 급제자에 대해서는 壯元이라고 불렀다.<sup>42)</sup>

이처럼, 문과에서도 각 단계별 절차마다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서, 초시든 복시든 전시든 상관없이, 시험에 붙었을 때에는 中이라고 표현하였으며, 1등으로 붙은 사람을 魁, 首라고 칭하거나 壯元으로 불렀으며, 이 중 魁라는 글자는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sup>43)</sup>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시험의 성격이 달랐으며, 이에 따라 시험 절차, 시험 절차별 선발인원 및 고시과목에서 차이를

38) 經國大典 吏典 諸科 조항은 문과급제자의 관직 제수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이다 : ‘명종 13년(1558) 戊午式年試’의 문과에서 1등으로 급제한 高敬命의 경우 文科榜目에 ‘甲科 三人’ 항목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39) 김창현, 앞의 책, 98쪽

40) 실록의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시대가 가장 앞선 것 하나만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27권, 태종 14년 3월 11일(甲申), 臨軒放文科及第榜 以鄭麟趾爲第一 覆試趙瑞康等 命領春秋館事河崙知春秋館事鄭擢 禮曹判書俛眉壽讀卷 崙等選對策三道 授代言卓愼以進曰 狀元非臣等所可定也 … 上曰予所執者狀元也 令進二卷 信手執其一 卽麟趾也.

41) 『成宗實錄』 76권, 성종 8년 2월 8일(丁丑), 延城府院君 李石亨卒 … 連魁進士生員試 又魁文科.

42)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8월 15일(기미)(『국역 목재일기』 3권, 515-516쪽), 鄭适來見 言文科只取十一人 吳雲驥爲壯元云云 … 吳雲驥曲城縣人云云.

43) 본래 과거시험에서 1등한 사람을 부르는 장원의 한자는 狀元이다. 狀元은 중국에서 과거시험의 결과를 천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奏狀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狀元 ; 정약용, 박상수 번역, 『아연각비』 雅言覺非,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33쪽). 그러나 위 각주의 태종실록과 『목재일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원의 한자는 狀元 이외에 壯元도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료에 나오는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보였다. 한편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각 단계별로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 붙었을 때에 선발인원 내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中이라 표현하고, 1등으로 붙은 사람에게 魁와 壯元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특히 魁라는 글자가 동사와 명사 형태로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2장에서 서술한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식년시를 중심으로 시험 절차별 선발인원과 고시과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식년시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시험 절차별 선발인원

종류		절차		
		初試	覆試	殿試
文科(大科, 東堂試)		館試 50명 漢城試 40명 鄉試 150명	33명	甲科 3명 乙科 7명 丙科 23명
生員進士試 (小科, 監試, 司馬試)	생원시	한성시 200명 향시 500명	100명 (1등 5명, 2등 25명, 3등 70명)	-
	진사시	한성시 200명 향시 500명	100명 (1등 5명, 2등 25명, 3등 70명)	-

<표 2> 식년시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시험 절차별 고시과목

종류		절차		
		初試	覆試	展試
文科(大科, 東堂試)		·初場: 義·疑·論 중 2편  ·中場: 賦·頌·銘·箴·記 중 1편, 表·箋 중 1편 ·終場: 對策 1편	·초장; 四書三經, 背誦 (나머지 二經과 子史를 원하는 경우는 臨文)  ·중장; 초시와 동일 ·중장; 초시와 동일	對策·表·箋·箴 ·頌·制·詔 중 1편
生員進士試 (小科, 監試, 司馬試)	생원시	·五經義 1편 ·四書疑 1편	초시와 동일	-
	진사시	·賦 1편 ·古詩·銘·箴 중 1편	초시와 동일	-

## · 九度狀元

### 1. 20세, 최초의 문과 초시 장원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 이이가 응시하여 성과를 얻은 첫 번째 과거시험으로 나오는 것은 戊申年(13세, 명종3년, 1548)의 “中進士解”이다.<sup>44)</sup> 여기에서 진사는 진사시를, 解는 초시를,<sup>45)</sup> 中은 붙었다는 것을 각각 말하여,

44) 『栗谷全書』 33권, 附錄, 年譜 上. 이 3장 전체에서 「율곡연보(율곡전서본)」의 과거시험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은 앞의 전거와 동일하여 다시 반복 제시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진사시의 초시에 붙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진사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방목 상으로는 ‘명종4년(1549년) 己酉 式年試’ 때에 실시된 생원진사시에 해당된다. 식년시에 실시된 생원진사시는 대체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초시는 식년 한 해 전의 가을에, 복시는 식년 당해 년의 봄에 각각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sup>46)</sup> 이에 따라 이이는 식년 한 해 전인 명종3년(1548)에 실시된 진사시의 초시에 붙은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이이가 과거시험에서 이룬 성과로 「울곡연보(울곡전서본)」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丙辰年(21세, 명종11년, 1556) “對策 魁漢城試”이다. 여기에서 한성시라고 할 때, 생원진사시의 초시, 문과의 초시를 모두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문과 초시의 종장 단계에서 고시과목으로 요구되는 對策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문과 초시의 한 종류인 한성시임을 알 수 있다. 이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성시에 응시한 것이며, 한성시 앞에 동사 형태의 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문과) 한성시에서 1등으로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이의 첫 번째 장원이다. 또한 한성시에서 장원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 對策이 별도로 언급된 것은, 문과 초시의 경우 초장, 중장, 종장의 제술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자가 결정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이가 특히,

45) 解(‘개’로 읽음)는 본래 사람이나 문서 등이 지방에서 서울로, 하급 단계에서 상급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과거시험에서는 한성시와 향시와 같은 초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發解; 정약용, 박상수 번역, 앞의 책, 35-36쪽).

46) 『經國大典』 禮典 諸科.

47) 다만, 명종실록에서는 이 생원진사시의 복시가 명종 4년(1549) 8월에 실시된 것으로 나와 일반적인 식년식 복시의 실시 시기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사시의 초시 시기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이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언제 언제 실시되었는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식년시의 실시 시기는 증광시 실시, 중국 사신 왕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울곡연보(울곡전서본)」의 내용을 따랐음을 밝힌다(『明宗實錄』 9권, 명종 4년 8월 26일(癸亥), 取生員洪溥進士李洞等二百人; 송준호·송만호 편저, 앞의 책, 242쪽).

대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한성시에서 장원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이가 첫 번째 장원을 한 이 문과 초시는 어떤 과거시험이었을까? 명종11년(1556)에 실시된 과거시험은 두 개이다. 하나는 7월에 실시된 알성시인데, 알성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어 초시라는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두 번째는 重試對擧를 계기로 실시된 '명종11년(1556년) 丙辰 別試'이며, 이 별시는 초시와 전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sup>48)</sup> 이이가 장원한 초시는 이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의 초시는 언제 실시된 것일까. 다시 말해 이이가 이 초시의 하나인 한성시에서 장원을 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의 문과 초시는 한성시와 향시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초시의 실시 시기는 향시와 한성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별시의 향시가 실시된 시기를 알면, 한성시의 실시 시기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목재일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목재일기』에서는 먼저 丙辰年(명종11년, 1556) 2월 15일자 기록에서 “어제 安應銓, 宋鉉 등이 급제했다고 들었다.”<sup>49)</sup>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진사 宋鉉와 幼學 安應銓 등은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의 문과 급제자들이다.<sup>50)</sup> 실록에 따르면,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에서 문과 전시는 명종11년(1556) 2월 7일 경에 실시되고, 2월 20일에 급제자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放榜禮가 거행되었다.<sup>51)</sup> 따라서 이문건이 이 문과 급제자에 대한 정보를

48) 송준호·송만호 편저, 위의 책, 253~254쪽; 『默齋日記』乙卯年(명종10년, 1555) 10월 25일(병술)(『국역 목재일기』 3권, 131쪽), 見右道文榜 宋鉉居首 宋師順 李淳 禹熙平 金守宏 呂應龜 皆中.

49) 『默齋日記』丙辰年(명종11년, 1556) 2월 15일(갑진)(『국역 목재일기』 3권, 187쪽), 昨日聞安應銓宋鉉等及第.

50) 문과방목에는 安應銓이 安應鈞으로 되어 있는데, 銓와 鈞과 비슷하여 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송준호·송만호 편저, 앞의 책, 253-254쪽).

51) 『明宗實錄』 20권, 명종 11년 2월 7일(丙申), 諫院啓曰 今年別試文科 多至二百人 此雖因倭寇聲息, 廣取武士 至於文科則不然 他日不爲宰相臺諫, 又必有人民之責焉 若取之不重

입수하여 기록한 2월 15일자는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의 문과 전시와 방방례가 2월에 실시되었다는 명종실록의 기록과 일치하였다.

『목재일기』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에는 시기를 앞으로 소급하여 丙辰年 1, 2월과 그 한해 전인 乙卯年(명종10년, 1555) 전체를 살펴서,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 문과의 초시 중 하나인 향시, 그중에서도 경상도 향시가 실시된 기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 문과의 향시는 乙卯年 10월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재일기』의 乙卯年(명종10년, 1555) 10월 6일자 기록에는 “星州 牧使가(경상좌도의 향시가 열리는) 永川에 가서 문과 시관이 되었다.”<sup>52)</sup>는 내용이 있다. 이어서 10월 25일에는 “경상우도의 문과 방목을 보니, 宋鉉이 1등을 차지하였으며, 宋師順, 李淳, 禹熙平, 金守宏, 呂應龜 등이 모두 붙었다.”<sup>53)</sup>라고 하여, 경상우도 향시의 결과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종11년(1556) 丙辰 別試’의 문과 향시가 乙卯年(명종10년, 1555) 10월에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목재일기』에서 확인하게 됨에 따라, 이이가 최초로 장원을 한 문과 한성시 역시 乙卯年 10월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則一時之望亦輕 豈可使以次上次中出身者 取笑於人乎 大抵科舉之法苟且 則一時之人 必生僥倖之心 不如勿取之爲愈也 請於文科殿試 文武科重試未入格者 分數不多者 竝勿取 答曰 知道 自上取之之時 當斟酌爲之; 『明宗實錄』 20권, 명종 11년 2월 20일(己酉), 放文武科別試榜 文科取生員李民覺等十二人 武科取忠順衛朴漢輔等二百人.

52) 『默齋日記』 乙卯年(명종10년, 1555) 10월 6일(정묘)(『국역 목재일기』 3권, 123쪽), 牧使如永川文榜試官 … 試官豫差云.

53) 『默齋日記』 乙卯年(명종10년, 1555) 10월 25일(병술)(『국역 목재일기』 3권, 131쪽), 見右道文榜 宋鉉居首 宋師順 李淳 禹熙平 金守宏 呂應龜 皆中.

## 2. 22세, 23세의 연이은 문과 초시 장원

바로 앞 절에서는 이이의 첫 번째 문과 초시 장원의 시기를 수정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는 아예 없는 과거시험 내용을 새로이 보충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戊午(명종13년, 1558) 式年試’에서 문과의 초시 중 하나로, 식년 한 해 전인 丁巳年(명종12년, 1557)에 실시된 한성시에서 이이가 장원을 했다는 것이다. 장원의 횟수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한국철학 연구자들은 이이가 丁巳年에 한성시에서 장원을 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필자는 연구가 부진했던 시기에 대표적 율곡 연구자이자 『교감본 율곡전서』의 작업에도 참여한 김경호 선생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정원재의 2005년 연구에 이미 이 사실이 언급되었음을 재차 알게 되었다.<sup>54)</sup> 정원재의 연구, 김경호의 의견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栗谷全書拾遺』에 실린 「誠策」이며, 그 題下에 주석으로 달린 “丁巳漢城試居魁”였다.<sup>55)</sup> 이 주석의 내용은 “丁巳年(22세, 명종12년, 1557) 한성시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丁巳年의 한성시 장원에 대해 김경호 선생은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목재일기』의 丁巳年(명종12년, 1557) 10월 6일자 기록 중 “이이가 보러 왔는데, 그의 형도 한성시에 붙었다고 한다.”<sup>56)</sup>는 내용이었으며, 서울에서 경상도 성주까지의 이동 기간이 10여 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성시는 9월에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다.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 따르면, 이이는 丁巳年 9월에 성주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하는데,<sup>57)</sup> 9월 한 달 동안 경상도 성주에서 혼인하고, 서울에 올라가 한성시에

54) 정원재, 「이이 철학의 형성 과정과 시기 구분」, 『哲學論究』 33집, 2005, 6쪽.

55) 『栗谷全書拾遺』 6권 雜著 3, 誠策 : 정원재 연구에서는 한성시 장원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誠策」 등 과거시험 답안 형태의 글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誠策」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정원재, 위의 논문, 1-2쪽).

56) 『默齋日記』 丁巳年(명종12년, 1557) 10월 6일(을유)(『국역 목재일기』 3권, 397쪽), 李珣來見 其兄亦中漢城試云

응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에 나온 그의 저서 『모던 율곡』에서 이이의 혼인 시기를 『목재일기』에 의해 丁巳年 4월로 제시한 터였다.<sup>58)</sup>

본고에서는 이이가 丁巳年에 한성시에서 장원을 하였다는 한국철학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근거를 더 찾아 보았다. 첫 번째 추가 근거는 『栗谷全書拾遺』에 수록된 「四子言誠疑」이다. 일단 이 「四子言誠疑」는 문과 초시의 초장에서 경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부과된 四書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題下에 ‘丁巳’라는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sup>59)</sup> 결국, 「四子言誠疑」의 작성 시기를 丁巳年이라 보고, 앞서 언급했던 「誠策」까지 고려하면, 이이는 丁巳年에 한성시의 초장에서는 「四子言誠疑」을, 종장에서는 대책문 「誠策」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특히 종장의 대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이 한성시에서 장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추가 근거는 『목재일기』의 새로운 내용이다. 지금까지 『목재일기』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가 이이의 혼인과 관련하여 丁巳年 1월에 성주를 방문한 뒤, 이이는 4월에 성주목사 노경린의 사위가 된다.<sup>60)</sup> 그리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이는 혼인 이후 성주에서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가 9월에 한성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고, 다시 성주로 내려와 10월 6일에 이문건을 방문하여 그의 형인 李璿 역시 한성시에 붙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이가 丁巳年에 한성시에서 붙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는 『목재일기』의 戊午年(명종13년, 1558) 1월 21일자에 기록된 “중국 사신이

57) 『栗谷全書』 33권, 附錄, 年譜 上, 丁巳年, 九月 聘夫人盧氏.

58) 김경호, 『모던 율곡』, 학아재, 2018, 38-39쪽.

59) 『栗谷全書拾遺』 6권 雜著 3, 四子言誠疑. 이것을 四書疑로 판단하는 이유는, 「四子言誠疑」의 앞 부분에 나오는 출제 문제가 대학, 중용, 맹자, 논어 각각에서 나온 글귀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60) 김경호, 앞의 책, 38-39쪽.

3월 초에 오기 때문에 式年 東堂을 7월로 미룬다는 奇別이 성주목사 청사에 당도하여 이이가 행차를 중지하였다”라는 것이다.<sup>61)</sup> 이 일기에 따르면, 성주에 있던 이이는 戊午年 1월 말에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였지만, 3월 초에 방문하게 될 중국 사신 때문에 식년 동당이 7월로 연기된다는 朝報를 확인한 뒤 행차를 멈추었다. 戊午年 3월 초에 실시되기로 되었던 식년 동당은 식년시 문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년시 문과의 복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이가 3월에 실시될 식년시의 문과 복시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이가 이미 이 문과 초시에 붙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戊午(명종13년, 1558) 式年試’ 문과의 경우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식년시의 초시는 식년 한 해 전 가을에, 식년시의 복시와 전시는 식년 당해 년의 봄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경우로, 이미 丁巳年 가을에 초시가 실시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사신이 戊午年 3월에 오는 바람에 그 복시가 봄에서 7월로 미뤄지고 있던 것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7월로 예정된 이 식년시 복시는 다시 연기되면서 실제로는 10월 경에 실시되었다.<sup>62)</sup>

61)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1월 21일(경오)(『국역 목재일기』 3권, 435-436쪽), 孟二道往見且傳 天使三月初出來 式年東堂退定七月事奇別到上牙 李珣停行云云 乃去.

62) 이 식년시의 복시가 왜 미루어지고, 이후 언제 실시되었는지 실록에서 찾을 수 없지만, 10월 경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식년시의 경우에는 생원진사시와 문과가 함께 실시되며, 생원진사시의 입격자들이 문과의 복시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생원진사시의 복시가 실시된 이후에 문과의 복시가 실시된다. 그런데 이 ‘戊午(명종13년, 1558년) 式年試’의 생원진사시에서는 복시 입격자에 대한 放榜禮가 10월 10일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문과의 복시 실시 직후 곧바로 문과 전시가 실시되는데, 이 식년시의 문과 전시가 10월 28일에 실시되고, 11월 2일에 문과 급제자들에 대한 방방례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식년시의 복시는 10월 10일 이후 10월 28일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明宗實錄』 24권, 명종 13년 10월 10일(癸丑), 上御勤政殿 放生員進士榜 生員第一人周博 進士第一人李中立也; 『明宗實錄』 24권, 명종 13년 10월 28일(辛未), 上親試文武科; 『明宗實錄』 24권, 명종

사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이이의 「誠策」, 「四子言誠疑」와 『목재일기』의 내용들만으로도 이이가 ‘戊午(명종13년, 1558년) 式年試’에서 식년 한 해 전인 丁巳年 가을에 문과 초시의 하나인 한성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였다는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이가 이 한성시에서 장원한 시기를 사료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목재일기』를 검토해보니, 丁巳年 9월 10일에 경상도 향시의 초장이, 9월 12일에 경상도 향시의 중장이 각각 실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9월 15일에는 경상도 향시의 초장, 중장, 종장에서 출제된 시험문제까지 상세히 기록되고 있었다.<sup>63)</sup> 역시 이이가 이 한성시에서 장원한 시기는 丁巳年의 9월이 맞았던 것이다.

이이는 이 丁巳年(22세, 명종12년, 1557) 9월에 한성시에서 장원을 한 뒤, 그 다음 해에 연이어 장원을 하게 된다. 그것은 「울곡연보(울곡전서본)」의 戊午年(23세, 명종13년, 1558)에 나오는 “冬 魁別試解”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별시는 세자책봉의 경축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문과방목 상의 명칭으로는 ‘戊午(명종13년, 1558) 別試’를 말하며,<sup>64)</sup> “겨울에 이 별시의 문과 초시에서 장원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이의 세 번째 장원인 셈이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이가 이 별시 문과의 초시에서 장원을 한 시기이다. 「울곡연보(울곡전서본)」에서는 그 시기를 겨울이라고 하였지만, 『명종실록』에는 이 별시의 전시가 명종 13년 8월 6일에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었다.<sup>65)</sup> 따라서 초시는 전시가 실시된 8월 이전에 실시되었을 것이다. 이

13년 11월 2일(乙亥), 放文武科榜 文科取高敬命等三十五人 武科取南彥純等二十八人).  
 63) 『默齋日記』 丁巳年(명종12년, 1557) 9월 10일(경신)(『국역 목재일기』 3권, 386쪽), 今日東堂開場也; 『默齋日記』 丁巳年(명종12년, 1557) 9월 12일(임술)(『국역 목재일기』 3권, 387쪽), 東堂中場; 『默齋日記』 丁巳年(명종12년, 1557) 9월 15일(을축)(『국역 목재일기』 3권, 387쪽), 策問兵事 賦反袂拭泪 表張詠請斬丁謂以謝天下 論請命三王云云.  
 64) 송준호·송만호 편저, 앞의 책 256쪽.  
 65) 송준호·송만호 편저, 위의 책, 256쪽; 『明宗實錄』 24권, 명종 13년 8월 6일(庚戌), 上御勤政殿簷下 出文科殿試題 後御光化門 試武舉. 이 별시의 전시가 8월에 실시되었음은 吳雲驥 등 이 별시의 급제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默齋日記』의 8월 15일자

별시의 초시가 언제 실시되었는지 역시 『목재일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戊午(명종13년, 1558) 別試’의 경우에도 초시가 한성시와 향시로 나누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향시의 실시 날짜를 통해 한성시 실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목재일기』의 戊午年(명종13년, 1558) 윤7월 10일자에는 이 별시의 경상좌도와 경상우도 향시 시관들이 각각 시험 감독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윤7월 15일자에는 경상좌도 향시에서 붙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였다.<sup>66)</sup> 그리고 윤7월 18일자에는 “禹希成이 와서 만나보았는데, 그의 형이 별시 초시에 붙어서 가까운 시일에 상경한다고 말하고 바로 갔다.”<sup>67)</sup>라고 하여, 이 별시의 초시에 붙은 사람들이 서둘러 상경하여 8월 6일에 전시에 응시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별시의 경상도 향시가 실시된 시기를 통해서, 이이가 장원한 이 별시의 한성시 역시 윤7월에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이가 戊午年(23세, 명종13년, 1558) 윤7월에 별시의 초시에서 장원을 한 것으로 볼 때, 이이는 무오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과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이는 무오년 윤7월에 별시의 초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고, 곧이어 8월에 실시된 별시의 전시에 응시한다. 그리고 한 해 전 9월 식년시 초시에서 장원을 했던 이이는 무오년 10월에 식년시 문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8월 15일(기미)(『국역 목재일기』 3권, 515-516쪽), 鄭适來見 言文科只取十一人 吳雲驥爲壯元云云 姜賢同之孫 柳藕之子 等皆登科 尹悞夫末子根壽亦中 此道人只咸陽林希茂一人中之云 吳雲驥曲城縣人云云).

- 66)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윤7월 10일(을유)(『국역 목재일기』 3권, 502쪽), 別試初試策一道 右道開寧朴大立 左道慶山李順監試;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윤7월 15일(경인)(『국역 목재일기』 3권, 504쪽), 李悞赴左道中初試, 宋應秀亦高中矣.
- 67) 『默齋日記』 戊午年(명종13년, 1558) 윤7월 18일(계사)(『국역 목재일기』 3권, 504쪽), 禹希成來見 其兄中別初試, 近上京云 卽去.

복시에 응시하였다. 결국, 이이는 戊午年에만 총 세 번 문과에 응시하고, 두 번 낙방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 3. 29세,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의 총6회 장원

앞 절에서 서술하였듯이, 이이는 이전까지 문과 초시에서만 장원을 세 번 하면서도 최종 복시와 전시에서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이이는 甲子年(29세, 명종19년, 1564)에 이르러 7월에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모두 입격하고, 연달아 같은 해 8월에 문과에서까지 급제하였다. 이이가 입격하고, 급제했던 이 과거시험의 방목 상 명칭은 ‘甲子(명종19년, 1564) 式年試’이다.<sup>69)</sup>

다만,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이이는 이 ‘甲子(명종19년, 1564) 式年試’의 생원시 초시, 진사시 초시, 문과 초시에서도 각각 응시하여 모두 장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이가 이 초시들에 응시하여 장원을 한 시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 식년시의 경우 일반적인 실시 규정에 따라 식년 한 해 전인 癸亥年(명종 18년, 1563) 8월에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실시된 생원진사시의 향시에 문제가 생겨 9월에 罷榜이 되었는데,<sup>70)</sup> 그 이후 언제 다시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71)</sup>

68) 이에 따르면 이이는 무오년(1588년) 8월에 별시의 전시에서 떨어지고, 그 이후 10월에 실시된 식년시의 복시에서도 떨어졌다. 따라서 이이가 이황에서 과거시험에서 떨어져 낙담하고 있는 듯한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이 식년시의 복시에서도 낙방한 10월 이후로 보인다(『退溪集』 권 14, 答李叔獻(2))

69) 송준호·송만호 편저, 앞의 책, 268쪽.

70) 『明宗實錄』 29권, 명종 18년 8월 23일(己巳) ; 『明宗實錄』 29권, 명종 18년 8월 24일(庚午) ; 『明宗實錄』 29권, 18년 9월 4일(己卯) ; 『明宗實錄』 29권, 명종 18년 9월 5일(庚辰).

71) 이 식년시의 생원진사시가 실시된 시기를 알아야 문과의 실시 시기도 알 수 있다.

다시 이이가 거둔 생원진사시의 성과로 돌아오면,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는 “七月 中生員進士”라고 하여 이이가 생원시의 복시, 진사시의 복사에서 모두 붙었음을 기록하였으며, 사마방목에서는 이이가 생원시의 복사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진사시의 복시에서는 ‘3등 12위(42/100)’로 입격했음을 알려준다. 이이가 생원시의 복사에서 장원을 한 것은 명종실록에서도 확인된다.<sup>72)</sup>

이제 확인할 것은 이이가 생원시의 초시, 진사시의 초시에서 각각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이이는 진사시의 초시에서는 장원을 하였다. 그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栗谷先生全書拾遺』에 수록된 「送項梁渡江」이라는 詩 제목에 붙은 “進仕初試狀元”이라는 주석이다.<sup>73)</sup> 진사시 초시에서는 賦 1편, 古詩, 銘, 箴 중에서 1편 총 2편을 시험 보였는데, 이 주석 내용에 따르면, 이이는 특히 이 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진사시 초시에서 장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이가 진사시의 초시에서 장원을 했음은 「율곡연보(율곡전서본)」의 “魁監試兩場”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魁가 1등을 했다, 장원을 했다 라는 의미임은 이미 앞에서 누누이 설명하였으며, 監試는 생원진사시이며, 兩場은 생원진사시가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 실시될 때, 초시에서든 복시에서든 항상 먼저 실시되는 진사시를 初場으로, 그 뒤 실시되는 생원시를 終場으로 각각 부르던 것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문제는 이 兩場이 생원진사시의 초시

식년시가 설행될 때에는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함께 실시되었으며, 응시생들이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원진사시의 초시를 실시한 뒤 일정한 간격을 띠고 문과의 초시를 실시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7세기 경상도 향시의 사례를 보면,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된 뒤 약 20일에서 30일 뒤에 문과의 초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차미희,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과거시험」, 『국학연구』 23, 2013, 295-296쪽).

72) 『明宗實錄』 30권, 명종 19년 7월 28日(戊辰), 放生員進士榜于明政殿庭 生員第一李珣進士第一趙瑗.

73) 『栗谷先生全書拾遺』 1권, 詩, 送項梁渡江.

를 말하는지, 복시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마방목에서 확인 되듯이 이이는 진사시의 복시에서 장원이 아닌 ‘3등 12위(42위/100명)’로 입격했기 때문에 이 兩場은 초시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생원시와 진사시의 초시에서 장원하였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이가 생원시의 초시에서도 장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이는 생원시의 초시, 진사시의 초시에서 각각 장원을 하였으며, 이후 甲子年 7월에 실시된 생원시의 복시에서도 장원을 하여, ‘甲子(명종19년, 1564년) 式年試’의 생원진사시에서는 총 3회 장원을 했다.

한편, 이이가 이 ‘甲子(명종19년, 1564년) 式年試’의 문과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 「울곡연보(울곡전서본)」에서는 “八月 中明經及第 … 魁文科發解 … 又魁文科覆試殿試”라고 기록되었다. “中明經及第”에서 明經은 식년시 문과의 별칭으로, 74) “식년시 문과에서 급제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魁文科發解 又魁文科覆試殿試”는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모두 1등을 차지, 장원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75) 이이가 이 식년시의 문과 전시에서 장원을 하였음은 문과방목과 명종실록에서 확인되며, 76) 식년시 문과의 초시와 복시에서도

74) 식년시 문과의 경우 복시의 초장에 경학에 대한 이해를 암송으로 시험보이는 講經이 있었기 때문에 明經 또는 明經科라고 별칭되었다(『成宗實錄』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戊子), 傳旨戶曹曰 順天教授權景溫 年垂七十 不倦於學 歲庚子 登明經科 予嘉其志).

75) 이 중 發解를 초시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래 解(‘개’라고 읽음)는 초시를 말하며, 發解는 초시에 붙었다는 뜻이다(『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發解; 정약용, 박상수 번역, 앞의 책, 35-36쪽). 따라서 ‘魁文科發解’에서 ‘發解(초시에 붙었다)’는 ‘魁(1등으로 붙었다, 장원하였다)’와는 중복되면서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朴世采는 1682년(숙종7)경 자신이 개정을 주관하였던 『栗谷先生年譜』 補編이 편찬된 이후 다시 發解를 解로 바꾸어 자신의 문집에는 “魁文科解(문과 초시에서 장원을 하였다)”라고 수정하였다(『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卷第85, 「栗谷李先生年譜 上」).

76) 송준호·송만호 편저, 앞의 책, 268쪽; 『明宗實錄』 33권, 명종 19년 8월 24일(癸巳), 命官殿試文武科 取生員李珥等三十三人 內禁衛韓繼男等二十八人.

장원을 하였다는 것은 명종실록에 나타난다.<sup>77)</sup> 결국, 이이는 문과 초시에서 장원을, 이후 甲子年 8월에 실시된 문과의 복시와 전시에서 각각 장원을 하여,<sup>78)</sup> ‘甲子(명종19년, 1564년) 式年試’의 문과에서 총 3회 장원을 했다.

이상의 3절에서 서술한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의 성적을 모두 합해보면, 이이는 ‘甲子(명종19년, 1564년) 式年試’에서 생원시의 초시, 진사시의 초시, 생원시의 복시에서 3회 장원,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3회 장원, 총 6회 장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앞 1, 2절에서 서술했던 3회 장원까지 포함하여, 이이의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모든 과거시험에 대한 확인은 끝났다.

3장 전체에서 이이의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으로 제시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77) 『明宗實錄』 32권, 명종 21년 3월 24일(乙卯), 以李珥爲司諫院正言… 李珥 自少時已有文名 … 中生員壯元 … 其登第也 通魁三場. 이 사료는 이이가 문제에 급제한 2년 뒤 사간원 정원에 임명될 때, 史官이 이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생원시의 복시에서 장원을 하였음을 말한 뒤에 문과에 급제할 때에는 통털어 三場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본고에서는 三場을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로 본 것이다.

78) 문과방목에 따르면, 이 문과의 전시는 8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문과의 복시 역시 전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전시에 앞서 실시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과 복시의 실시를 8월로 잡았다.

<표 3> 이이의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

장원 횟수	榜目 상의 시험 명칭	생원진사시				문과			장원 시기	「올곡연 보(올곡 전서본)」 과 비교
		생원시		진사시		초 시	복 시	전 시		
		초 시	복 시	초 시	복 시					
해 당 없 음	己酉式年試 (명종4년, 1549)			불 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회	丙辰別試 (명종11년, 1556)					장 원			乙卯年 (20세, 명종10 년) 10월	장원 시기, 수정
1회	戊午式年試 (명종13년, 1558)					장 원			丁巳年 (22세, 명종12 년) 9월	내용 보충
1회	戊午別試 (명종13년, 1558)					장 원			戊午年 (23세, 명종13 년) 윤7월	장원 시기, 수정
6회	甲子式年試 (명종19년, 1564)	장 원	장 원	장 원	입 격	장 원	장 원	장 원	*생원시 복시- 甲子年(29세 , 명종9년) 7월 *문과 복시- 甲子年 8월 *문과 전시- 甲子年 8월	

본고는 이이가 과거시험에서 아홉 번 장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장원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홉 번의 횃수는 맞는지, 맞다면, 그것은 어떤 시험들이었는지를 조선시대 과거시험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밝혀줬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본고에서는 이이의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과 장원 시기를 제시하였으며,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 수록된 과거시험 내용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수정·보완하였는지도 밝혔다.

본고에서 우선적·기본적인 연구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이가 응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대한 이해였다.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성격, 시험 절차, 시험 절차별 고시과목과 선발인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서 사용된 魁, 狀元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생원진사시와 문과에서 각 단계별로 실시되는 모든 시험마다 1등으로 붙은 사람에게 魁와 狀元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실록과 『목재일기』 등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구도장원’ 중 ‘장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연구를 시작하면서, 「율곡연보(율곡전서본)」의 甲子年(29세, 명종19년, 1564) 기록에 나오는 ‘아홉 번의 居魁’와 ‘구도장원’을 연결시켰던 생각은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에서 또 다른 근거가 된 것은 새로운 사료들이었다. 이이가 20세, 22세, 23세에 문과 초시에서 장원을 한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율곡연보(율곡전서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했어야 했는데, 이 때 장원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목재일기』를 통해서 각각 이루어졌다. 또한 ‘구도장원’의 내용 중 「율곡연보(율곡전서본)」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지 못해, 본고에서 추가로 넣어야 했던 丁巳年(22세, 명종12년, 1557) 한성시 장원의 경우에는 이이의 과거답안 글들과 『목재일기』를 통해 근거를 제시했다. 물론 이때의 근거는 한국철학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가운데 추가로 제시한 것이긴 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장원 호칭의 문제도 『목재일기』를 통해 해결했던 것까지 고려하며, ‘구도장원’ 연구에서 『목재일기』는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을 제시할 때, 「율곡연보」

(울곡전서본)의 과거시험 내용들을 시기순으로 차례대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 하나는 이이의 20대 행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였다. 사실 이이의 29세 이전 행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여 연보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울곡연보」(울곡전서본)에 기록된 이이의 20대 주요 행적은 혼인, 아버지 삼년상, 과거시험 등으로, 이 중 삼년상의 기간을 제외하면, 20세, 22세, 23세, 29세로 이어지는 ‘구도장원’은 20대 행적의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교감본 울곡전서』에서 제안한 대로 훗날 새 「울곡연보」가 편찬될 때 그 시작은 반드시 「울곡연보」(울곡전서본)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이루어질테니, 그 때 「울곡연보」(울곡전서본)의 과거시험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본고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였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울곡 이이의 ‘구도장원’을 다루면서 장원 시기를 수정 제시한 것들은 이후 더 많은 사료를 통해 그 근거를 보충해야 하며, ‘구도장원’에 해당하는 과거시험을 밝히는 것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울곡 이이의 ‘구도장원’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선시대 「울곡연보」가 4차례 편찬·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이의 과거시험 성과에 대한 기록의 변화 추이와 그 의미를 조선후기 이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이의 과거시험에 대한 인식, 과거시험 준비, 낙방과 좌절까지를 포함한 연구도 진행해보고자 한다.

1.

朝鮮王朝實錄, 栗谷全書, 三灘集, 虛白堂集, 退溪集, 南溪集

<https://db.itkc.or.kr/>(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司馬榜目, 文科榜目, 默齋日記, <https://jsg.aks.ac.kr/>(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經國大典(民族文化영인본).

송준호·송만호 편저, 『朝鮮時代 文科白書(上)』 太祖~仁祖, 삼우반, 2008.

전주대학교 율곡이이 자료 집성 및 정본화 사업단, 『교감본 율곡전서』 1~3, 율곡연구원, 2019.

정약용, 박상수 번역, 『아언각비』 雅言覺非,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정공식 외, 『역주 목재일기』, 경인문화사, 2019.

2.

금장태, 『율곡평전 나라를 걱정한 철인』, 지식과교양, 2011.

김경호, 『모던 율곡』, 학아재, 2018.

김창현, 『朝鮮初期 文科及第者研究』, 일조각, 1999.

차미희,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국학자료원, 1999.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한영우, 『율곡 李珣 평전』, 민음사, 2013.

3.

유세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韓國史論』 18, 2006.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율곡 이이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儒學研究』 52, 2020.
- 전경목, 「한글 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진성이씨 이동표 언간」, 『정신문화연구』 34권 3호, 2011.
- 정원재, 「이이 철학의 형성 과정과 시기 구분」, 『哲學論究』 33, 2005.
- 차미희, 「『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鄉試」, 『韓國史學報』 53, 2013.
- 차미희,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과거시험」, 『국학연구』 23, 2013.

---

**Abstract**

On the Nine Times-First Grade of Yulgok Yi Yi

Cha Mihee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Yi Yi (1536-1584) has become a First Grade(Jangyuan) nine times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hat does that Jangyuan mean? The number of times is right. If so, what kind of examination is it? I want to make an empirical explanation from the standpoint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professionals in the Chosen era. JangYuan is the name given to the first person in the 'Classics and Literacy Licentiate Examination' and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conducted at all stages. Yi, 20, 22 and 23 years old, won JangYuan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respectively, and 29 years old, won JangYuan in the 'Classics and Literacy Licentiate Examination'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6 times, a total of 9 times.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o use new historical materials to modify and improve the past examination contents of the "Yulgok Annales"(Total Collection of Yulgok) in turn, and accordingly modify other contents of the "Yulgok Annales". The results will help to improve Yi Yi's deeds in his twenties, and help to compile the new "Yulgok Annales" in the future.

**Key Words** : Yi Yi, the Classics and Literacy Licentiate Examinati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Nine Times-First Grade, Yulgok Annales, Total Collection of Yulgok